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페트로베트남(PVN)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PVN)은 1977년 설립된 베트남 석유·가스그룹으로 베트남 국내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이다. 산하에 PV Gas, PV Pipe, PV Oil, PV Power 등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페트로리멕스(Petrolimex)가 베트남 석유유통부문에 집중하는데 반해 직접 원유의 탐사 및 개발, 시추 그리고 정유에 이르기까지 사업분야가 광범위하다. 초창기 PVN은 같은 공산국가인 구소련의 지원과 협력 하에 성장했다. 이후 1986년 Bach Ho 유전에서 최초로 원유시추에 성공하며 베트남은 세계 산유국 중 하나로 발돋움하였고, 현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그리고 이라크 등 해외에도 진출 중이다. 무엇보다 국영기업이라는 이점은 은행 대출, 신용거래, 정부사업 조달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직간접 특혜 속에서 규모의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2019년 해외사업에서 1조원가량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만한 경영실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베트남정부는 전체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고, 투자금 회수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VN 계열사 역시 주식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2015년부터 시행된 국영기업 비핵심분야 투자 금지 조치에 따라 본업인 석유·가스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탐사에서부터 정유에까지 이르는 수직계열의 사업구조는 변동성이 큰 유가가격에 따라 수익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KITA\(링크\)](#), [PVN\(링크\)](#)

국제유가와 PVN 매출 관계

정유사는 유가 상승 폭 대비 제품 판매가격 상승 폭의 차이가 클수록 수익이 커진다. 특히 원유 시추에서부터 정유까지 총괄하는 PVN의 경우 휘발유, 경유 같은 정유 제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은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크다. 실제로 배럴당 1달러 하락할 때마다 PVN 매출은 연간 약 9400만 달러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글로벌비즈\(링크\)](#)

페트로베트남(PVN),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페트로베트남(PVN)이 올해 8월까지 세전이익 30조2000억 VND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배 증가한 수치이며, 기존 목표치의 177%를 초과달성한 기록이다. 4차 대유행 이전이었던 지난 상반기 반등한 석유수요와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겪은 이후 그룹 차원에서 1조6000억 VND 비용절감, 계열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라 다시 석유 수요가 감소하며 현재 중궤 및 응이썬 정유공장에서는 생산량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아울러 계열사 중 하나인 BSR 관계자에 따르면, 재고량이 90%를 초과해 저장소 비용까지 증가하며 정유가동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VietnamPlus\(링크\)](#)

주요기사

교통부, Quang Nam 성 인프라 투자 의지 보여

교통부가 Quang Nam 인민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주요 인프라 투자계획 제안서를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1500억 VND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Loc My, Ba Khe 1, Ba Khe 2, Ba Khe 3의 4개 교량을 포함한 DT.609번 도로의 완공 투자 계획이다. 이에 Quang Nam 성 인민위원회는 기획투자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출처: [VietnamBiz\(링크\)](#)

Vietnam Airlines, 국내선 하한요금 인상 요구

9월 8일 Vietnam Airlines가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에 보낸 서신에서 국내선 이용고객의 하한요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요금의 운항거리에 따라 상한요금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요금 기준 44%에 달하는 하한요금의 설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저소득층의 항공 접근성 악화, Vietjet 등 다른 저가항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VietnamBiz\(링크\)](#)

디지털 친화적 사고방식 확산



데이터분석회사 FICO의 2021년 디지털 뱅킹 현황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인구 중 63%가 작년과 비교하여 디지털 친화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작년대비 42%의 이용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가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분증명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베트남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25%가 계좌개설시 금융기관이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것에 피로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의 절차 간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BizHub\(링크\)](#)

금융

재무부, 회사채 발행 경고

Ho Duc Phuoc 재무부 장관이 베트남 증권위원회에 회사채 시장의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공식 서한에서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이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주요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모채 발행의 증가가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발표된 Decree No. 153을 준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강화, 규정위반행위 감시 등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베트남채권시장협회(VBMA)에 따르면 올해 7개월간 회사채 발행은 총 376개이며 금액은 235조 940억 VND에 달한다. 출처: [VietnamBiz\(링크\)](#)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독주체제 강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에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독주가 거세지고 있다. 1위 업체이자 외국기업인 Shopee와 Lazada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함께 14% 성장한 방문자 수를 기록한 것과 대비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Tiki 와 Sendo의 경우 평균 방문자 수가 각각 172만, 79만씩 줄어든 것이다. 한편 Facebook이 발간한 동남아시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120억 달러 규모로, 오는 2026년에는 이보다 4.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커지는 시장을 두고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 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VIR\(링크\)](#)

꽝남 성



2021년 최저임금(đ)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호이안 시, 팜기시 Region 2

나머지 Region 3

명칭: Quảng Nam

성도: 꽝남 성

교통: Da Nang에서 86km / Ho Chi Minh에서 776km (육상·해상 교통의 요지)

GRDP: 35억 USD (2020)

연간성장률: 11.72% (2021)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꽝남 성은 면적 10,438km², 인구 150만 명의 도시로 호이안과 미선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대규모 관개사업으로 탄생한

푸닌 저수지가 주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문화유적과 자연관광지가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베트남

최초 개방경제지구인 추라이 개방

경제기구가 설립되어있으며, 우리나라

오산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다.

출처: [오산시\(링크\)](#)

Phu Xuan 공단

면적: 365ha

입지: Tam Ky City에서 4km/ Da Nang 공항에서 70km/ Tam Hiep 항구에서 15km/ Ky Ha 항구에서 23km/ Tien Sa 항구에서 65km

전기: 110 KV (40 MVA)

비용:

- 임대료: 30-35 USD/m²/년 (관리비 0.25 USD/m²/년) (각각 VAT 별도)
- 전기료: 사용시 Quang Nam 성 전기요금에 따름
- 물 사용료: 사용시 Quang Nam 성 가격체계에 따름
- 폐수 처리: 0.35 ~ 0.42 USD/m³
- 비고: 수입관세 면제

출처: [Kland\(링크\)](#)

Tam Anh 공단

면적: 200ha

입지: Chu Lai 공항에서 20km/ Da Nang 공항에서 40km/ Tam Hiep 항구에서 10.5km/ Ky Ha 항구에서 23km/ Tien Sa 항구에서 60km

전기: 110 KV (40 MVA)

비용:

- 임대료: 30-35 USD/m² (관리비 0.25 USD/m²/월) (각각 VAT 별도)
- 전기료: 사용시 Quang Nam 성 가격체계에 따름
- 물 사용료: 사용시 Quang Nam 성 가격체계에 따름
- 폐수 처리: 0.35 ~ 0.42 USD/m³
- 비고: 수입관세 면제

출처: [Kland\(링크\)](#)

SK이노베이션

베트남 Su Tu Trang 유전 원유채굴 성공

SK이노베이션이 15-1광구의 베트남 남동해안 Su Tu Trang 유전에서 2A단계의 원유 채굴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03년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VEP와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하여 15-1광구에서의 탐사권을 획득한 이후, Su Tu Den, Su Tu Vang, Su Tu Trang, Su Tu Nau에서 상업생산에 성공해왔다. 이번에 원유 채굴에 성공한 Su Tu Trang 유전은 베트남 동해 대륙붕 가운데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고 경제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유전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는 더욱 고무적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계약의 종류 중 SK이노베이션이 계약한 생산물분배계약은 단순한 서비스제공계약과 달리 생산물의 소유권을 자원보유국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1998년부터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지속해온 SK이노베이션의 성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0월 1일부터 배터리와 E&P(석유개발) 사업으로 물적분할을 시도하는 SK이노베이션은 보다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방점을 둘 계획으로 밝혀져 향후 베트남 사업에서의 귀추 역시 주목된다.

출처: [한국석유공사\(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

실천하는 ESG 경영, 베트남 공로상 수상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짜빈(Tra Vinh)성으로부터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에 대한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과 회사가 1대1 매칭그랜트로 조성되는 ‘1%행복나눔기금’을 재원으로 자사가 육성한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Manglub)’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매년 맹그로브 묘목 식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베트남 환경부, 짜빈 인민위원회, 유엔환경계획 등과 함께 ‘베트남 SV Alliance’를 출범시키며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밀림보다 5배 이상 높은 맹그로브 숲의 사회적 가치를 환기시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116ha 규모의 맹그로브 숲에 총 48만 그루의 묘목을 식수하는 성과를 보여주어 그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추계함으로써 기존의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SV)에서도 성과를 내자는 Double Bottom Line의 모토를 적극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SKInnoNews\(링크\)](#), [매일경제\(링크\)](#), [MediaSK\(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국내 최초 정유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은 1998 년 베트남 15-1 광구 탐사권 획득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무자원 산유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SK 이노베이션의 비전에 걸맞게 1980 년대부터 시작된 석유개발사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석유개발(E&P), 정유, 화학, 윤활유를 아우르는 사업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탐사-개발-상업생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석유개발(E&P) 사업은 경제성규모의 석유를 발견할 확률이 낮다는 점에서 High Risk - High Return 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석유공학, 지질탐사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오랜 기간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03 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15-1 광구에서 현재에도 활발히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15-1/05 광구에서 상업성 확인 및 2023 년부터 생산목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지분참여 형태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는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VEP 로부터 16-2 광구를 인수하며 현재 총 베트남 4 개 광구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BizChosun\(링크\)](#), [이데일리\(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h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